

플라톤의 이상국가와 대순진리회의 지상천국

나정원*

■ 국문요약

이 논문은 플라톤의 이상국가 구성요소를 바탕으로 대순진리회의 지상천국 실현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플라톤의 이상국가론이 서양철학의 국가론이라면 대순진리회의 지상천국은 한국종교의 국가론이다. 철학과 종교의 국가론 모두, 실현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철학적, 종교적으로 어떤 국가를, 어떤 방법으로, 누가 만드는지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지상천국의 개념과 관련하여 정치체제, 지상천국의 주권자와 관련하여 지상천국 실현의 주체가 누구인가의 문제, 지상천국 실현의 방법과 관련하여 상제-도주-도전-일만이천 도통군자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대순진리회의 지상천국은 현재의 상황에 맞게 그 구체적인 실천 가능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실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판단한다. 민족종교를 넘어 보편적 종교가 되고자 하는 대순진리회는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지상천국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신학 체계를 다양한 수준에서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대순진리회가 21세기 정치 현실에서 지상천국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통일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등 전 세계 환경 문제에 대한 대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 강원대학교 명예교수, E-mail: jwnah@kangwon.ac.kr

주제어 : 대순진리회, 플라톤, 지상천국, 이상국가, 상제, 도주, 도전

- I. 이상국가와 지상천국: 동서양 인간의 꿈과 현실
- II. 이상국가와 지상천국의 실현을 위한 논리적 조건
- III. 플라톤 이상국가 실현의 이론적 구조
- IV. 대순진리회 지상천국 실현의 이론적 구조
- V. 이상국가와 지상천국의 실현가능성과 과제

I. 이상국가와 지상천국: 동서양 인간의 꿈과 현실

이 논문은 플라톤의 이상국가 구성요소를 바탕으로 대순진리회 지상천국 실현가능성의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실현을 전제로 하지 않는 국가는 단순한 이상국가에 그치고 지상천국이라는 표현도 쓸 수 없는 천상국가일 뿐이며 현세에서는 접할 수 없는 국가이고 내세에서만 누릴 수 있는 국가이다.

이성적으로 사고하는 인간은 논리적으로 이상국가를 설계할 수 있고, 종교적으로 신앙하는 인간은 영성적으로 천상국가를 믿을 수 있다. 그러나 이성적 사고의 산물인 플라톤의 이상국가는 현실 속에서의 실현을 위한 끊임없는 논리적 과정을 거쳐서 그 실현을 위한 모습으로 제시되었으며, 종교적 신앙의 산물인 대순진리회의 지상천국도 천상천국이 아닌 '지상'천국으로 표현되면서 현실 속에서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철학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동서양에 걸쳐 인류는 이상세계를 끊임없이 구상하였고, 그 구상을 현실 속에서 실현하려는 노력 역시 끊임없이 진행하고 있다. 한국의 과거나 현재에서도 마찬가지이

다. ‘꿈’을 꾸어왔고, 지금도 ‘꿈’을 꾸고 있다.

그러나 동서양 역사에서 ‘이상세계’는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다. 이것이 ‘현실’이다. 아니 지금의 이 현실이 바로 ‘이상세계’가 실현된 모습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플라톤의 이상국가는 과연 서양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동양과 한국의 역사 속에서 실현되었는가? 실현되었다고 말한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 대순진리회의 천상국가는 한국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 세계 속에서 실현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말한다면 그 근거는 무엇이고, 과제는 무엇인가?

플라톤의 이상국가 구성요소를 바탕으로 대순진리회 지상천국의 실현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한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먼저 이상국가와 지상천국의 실현을 위한 논리적 조건을 제시한다. 서양 고대와 조선 후기·현대 한국의 이상세계 논의를 분석하기 위한 객관적인 틀이 필요하다.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이상세계의 개념, 실현 방법, 실현 주체 등의 구성요소 또는 분석개념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 설정가능하다. 다음으로 이러한 분석 개념을 바탕으로 먼저 플라톤 이상국가 실현의 이론적 구조를, 이어서 대순진리회 지상천국 실현의 이론적 구조를 분석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플라톤 이상국가와 대순진리회 지상천국의 실현가능성을 비교하면서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상국가와 지상천국의 실현을 위한 논리적 조건

이상국가나 지상천국 모두 ‘국가’에 관한 논의이다. 플라톤의 이상국가론이 서양철학의 국가론이라면 대순진리회의 지상천국은 한국종교의

국가론이다. 하지만 철학과 종교의 국가론 모두 그 실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논리적 조건들을 갖추어야 한다. 어떤 국가를, 어떤 방법으로, 누가 만드느냐를 적어도 철학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먼저 이상국가나 지상천국은 어떤 국가인가? 내용적으로 어떤 상태를 지칭하는 지가 구체화되어야 한다. 현실국가에서 이상국가로의 이행, 선천세계로부터 후천세계로의 이행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현실에서 실현되는 이상국가는 어떤 국가인가? 천상천국이 아닌 지상천국은 어떤 국가인가? 그리고 그 국가가 현실 속에서 실현을 전제로 한 것이라면, 그 국가의 권력구조는 어떻게 되는 지도 밝혀야 한다. 즉 이 국가의 지도자와 국민과의 관계는 법률적으로 어떻게 구성되는가도 ‘어떤 국가’의 설명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로 국가를 어떤 방법으로 만드느냐가 구체화되어야 한다. 현실 속의 이상국가와 지상천국은 속도가 늦고 변화의 폭이 좁은 점진적인 개혁으로 만들어지는가, 아니면 속도가 빠르고 변화의 폭이 넓은 혁명으로 만들어지는가, 아니면 이 두 가지 방법의 상황에 따른 결합으로 만들어지는가의 문제가 규명되어야 한다. 개혁이나 혁명의 경우 동원되는 구체적인 수단은 무엇인가? 법률 개정, 윤리나 도덕교육을 통한 인간개조 등이 개혁의 수단이라면, 현실국가의 파괴를 위한 물리력은 혁명의 수단이다. ‘어떤 방법’에 대한 설명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셋째로 국가를 누가 만드느냐가 중요하다. 정치지도자나 철학자, 종교지도자 등의 엘리트인가? 아니면 이들을 따르는 지식인인가? 일반 시민이나 일반 신자들은 그저 따르기만 하면 되는가? 그리고 국가 수립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 조직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누가 만드느냐’에 대한 설명이 추상적이거나 모호하게 남아 있으면, 현실 속에서 이상국가는 실현될 수 없고, 천상천국은 결코 지상천국이 될 수 없다.

Ⅲ. 플라톤 이상국가 실현의 이론적 구조

플라톤이 실현하려고 하는 이상국가에 대한 글쓴이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플라톤의 이상국가는 어떤 국가인가? 이데아가 법률을 통해 현실 속에서 실현되는 국가이다. 이데아를 아는 철학가는, 소크라테스를 그랬던 것처럼 현실 정치가들이 죽어버릴 정도로 현실정치의 권력을 잡기 불가능하다. ‘선의 이데아’를 반영하는 법률은 신법이나 자연법이고, 그대로는 아니지만 이 자연법을 부족하게나마 반영하는 법률이 관습법이나 불문법이며, 가장 적게 반영하는 법률이 실정법, 성문법이다. 성문법은 그리스 신화 속의 아폴론 정신이며 신법과 자연법의 해석이다. 법은 이상이 현실 속에 살아 있게 하는 도구이다. 이런 법치국가에서 법률에 의해 주권자의 위상이 결정되는 정치체제를 갖는다. 플라톤 이상국가의 정치체제는 법치가 필수적이며, 주권자가 1인인 경우 군주제, 다수이면 귀족제, 그리고 국민전 체가 주권을 가지면 민주제이다.

플라톤 이상국가는 ‘어떤 방법’으로 실현되는가? 법과 교육을 통해 사람을 개조함으로써 실현된다. 준법정신을 갖는 국민을 양성한다. 교육은 윤리교육, 도덕교육이다. 고대 그리스 민주주의의 기본가치인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존중하게 하는 교육이다. 법이 윤리를 위해서는 엄격하고 좁은 형태인데 반해, 교육은 법보다는 일반적이고 넓은 개념이다. 따라서 교육은 법의 이율배반을 위한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교육은 입법의 대상이 되지 않는 분야들을 포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은 법의 성공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일 수 있다. 법의 문제는 법 자체로서는 해결되지 않고 윤리로서 가능하므로 윤리교육은 플라톤의 이상실현을 위해서 절대적이다. 법과 교육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플라톤의 법은 엄격하게 법률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윤

리적이고 철학적이며, 법의 집행은 처벌적이기보다는 교육적이다. 플라톤의 이상국가는 ‘누가 실현하는가? 현실 속에 실현되는 이상국가의 정치체제에 따라 이데아를 반영하는 자연법을 군주제나 귀족제의 정치지도자, 자유, 평등의 가치를 바탕으로 법률을 준수하는 민주시민이 실현한다.’¹⁾

이와 같은 내용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플라톤에 대한 기본 이해가 새롭게 정리될 필요가 있다. 먼저 플라톤 자체에 대한 해석을 바로 잡아야 한다. 플라톤의 이상국가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은 초기 저술인 「폴리테이아」에 주목하여 부분을 전체로 강조한 학문적 오류가 있는 해석이다. 플라톤은 이상국가의 실현 가능성을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하여 저술을 집필하였다. 특히 이상국가의 현실에서의 모습을 치열하게 고민하였다. 플라톤의 이상국가는 철인정치가 아니라 자연법, 헌법을 통해 보편 이성이 실현되는 민주주의 국가였다. 초기 저작의 이데아는 철인이 아니라 후기저작 속의 법률을 통해서 실현된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식은 서양의 신학이나 정치사상, 법학 체계의 핵심을 구성하고 있다. 플라톤은 근대 법철학의 근간을 제공하는 자연법 사상가이며, 자유와 평등, 이성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주의를 내세운 근대 계약사상가들의 뿌리가 되는 고대 계약사상가이다.

플라톤 정치사상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그 해석이 부분적이고 비체계적이다.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분석되고 또 받아들여진 정치학 또는 정치사상에 있어서의 플라톤의 모습은 이상주의이다. 그 원인은 주로 국가론의 측면에서 「폴리테이아」에 치중하여 플라톤을 그의 초기 이데이론과 결부시켜 해석하는데 있다. 또한, 후기 대화편인 「법률」에 치중하여 플라톤을 평가할 경우, 현실주의, 현실타협주의 또는 초기 이상주의의 좌절이라는 내용이 그 주류였다. 이렇게 「폴리테이아」와 「법률」

1) 나정원, 『플라톤의 정치사상』 (서울: 법문사, 1989). 특히 「제3편, 플라톤 정치사상의 기본구조: 종교, 신화, 형이상학의 정치적 혼용」, p.153 이후를 참고.

에 치중하는 태도는 그 논리적 타당성을 가지고 있으나, 부분적인 해석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이 두 가지 태도를 지양하여 「폴리테이아」, 「법률」과 더불어 「정치가」를 연속선상에서 분석할 때에도, 이 세 대화편의 상관관계에 대한 철저한 접근이 없이 각각을 서로 단절적인 상태로 놓아두기 때문에 체계적인 분석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플라톤 정치사상에 대한 이와같이 단순화되고 분절적인 해석의 또 하나의 원인은 그의 대화편 중에서 정치사상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폴리테이아」, 「정치가」, 「법률」만을 그 분석대상으로 하며, 더구나 이 대화편들 중에서도 정치학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부분만을 확대 해석하고 이에 관계되는 다른 요소들을 무시해버리는데 있다. 이 대화편들에도 형이상학과 종교에 관한 언급이 체계적으로 존재하면서 정치사상과 관련을 맺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으며, 나머지 대화편들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정치사상의 분석에 필요하다. 따라서 플라톤 정치사상의 해석에는 첫째, 그의 모든 대화편이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과, 둘째, 정치사상에 관련되는 요소들 중 최소한 형이상학적·종교적 요소들의 분석이 필수적임이 지적되지 않을 수 없다.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에 따라, 자신 이전의 그리스 신화(종교)를 이성으로 정화시키면서 자신의 정치사상 전개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리스 신화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 보존되어야 하며, 이것은 정치공동체를 위한 변증론자(철학자)의 임무임을 플라톤은 제시하고 있다. 그것은 아폴론이나 전통적인 신화가 적어도 그에게는 철학적 가치뿐 아니라 국가, 정치에 대해 상징적 또는 실제적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플라톤은 법, 교육, 종교, 관습 등 그의 이상국가의 실현을 위한 가능한 방법들을 제시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이것들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다양한 상황에 맞게 현실에 적용시키는 제도까지도 구성한다.

결론적으로 플라톤 정치사상의 전체적이고도 체계적인 해석의 필요충분조건은 그의 모든 대화편을 통한 정치사상 구성요소의 분석이다.

학문적으로 다른 모든 사상가의 이해에도 이런 태도는 필수적이다.²⁾ 전체적이고도 체계적인 해석과 이해가 부족한 또 하나의 사례는 19~20세기의 마르크스이다.³⁾ 마르크스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한 마르크스로 마르크스를 이해하기 때문에 마르크스에 대한 오해가 발생한다. 마르크스 전체 저작을 통해 마르크스가 제시하는 그의 ‘이상국가’의 내용은 ‘공산당선언’의 몇 줄 뿐이다. 이 ‘이상국가’를 이루는 방법도 정치투쟁, 경제투쟁, 합법투쟁, 비합법투쟁 등 매우 다양하고 복잡적이다. 이 ‘이상국가’를 이루는 주체는 프롤레타리아이지만 마르크스는 프롤레타리아에 대한 절대 신뢰도 없고, 프롤레타리아의 계급의식 부족, 계급변동 가능성 등도 매우 우려하고 있다. 마르크스 사상 자체는 매우 유연하고 포괄적이지만, 마르크스 사후 정치가들이 자신들의 정치 권력을 위해 자신들을 정통마르크스주의자로 자처하면서 폭 좁게 활용하였다.⁴⁾

본 논문의 목적은 대순진리회의 지상천국과 플라톤, 또는 마르크스 이상국가론의 평면적 비교가 아니며, 플라톤과 마르크스에 대한 글쓴이 해석의 소개가 아니다. 강조하고자 하는 점은 대순진리회에 대한

2) 플라톤 이해를 바로 잡는 또 다른 방법은 아리스토텔레스를 통한 플라톤 이해를 지양하는 작업이다. 플라톤은 플라톤을 통해 이해해야지, 아리스토텔레스를 통해서 이해하면 안 된다. 정치사상사에서 이상주의와 현실주의의 대비는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는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때 우리는 이상주의자의 전형으로서 플라톤을, 현실주의자의 전형으로서는 아리스토텔레스를 곧 머리에 떠올리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대비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플라톤 비판을 아무런 비판 없이 그대로 수용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대체로 한 사상가의 다른 사상가에 대한 비판은 비판자의 주관적 논리를 강화하거나 전개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아리스토텔레스의 플라톤 비판도 예외가 아니다. 글쓴이는 『플라톤의 정치사상』(서울: 법문사, 1989); 『아리스토텔레스의 플라톤 비판에 대한 비판』, 『한국정치학회보』 28-2 (1994);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정치사상 비교에 대한 비판 I』, 『한국정치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1995);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정치사상 비교에 대한 비판 II』, 『한국정치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1996); 『아리스토텔레스와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논쟁』, 『한국정치학회보』 34-1 (2000) 등을 통하여 서양정치사상사에서 아리스토텔레스를 통한 플라톤 이해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

3) 나정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정치사상 비교에 대한 비판 II」.

4) 이와 관련된 글쓴이의 논문은 「맑시즘 국가론의 실천적 한계: 프랑스 지식인들의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 정치학회보』 30-1 (1996); 「민족담론과 탈민족담론의 변증법」, 『한국사학보』 19 (2005) 등이다.

어떠한 요소의 분석과 적용에서도, 대순진리회 지상천국의 분석에서도 관련된 모든 원자료를 전부 정밀하게 읽고 전체적이고 체계적인 해석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일부 표현만을 확대하는 부분의 전체화 오류를 방지가 중요하다. 상제 이후 다양한 증산교 계열의 종단의 등장 이 유도 부분의 전체화 오류 때문일 것이다.

IV. 대순진리회 지상천국 실현의 이론적 구조

현실 속에서 실현되는 대순진리회의 지상천국은 어떤 국가인가? 지상천국의 정치체제는 무엇인가? 정교일치의 신정정체인가? 세속적인 정치체제 형태인 군주정, 귀족정-과두정, 민주정인가? 주권자는 누구인가? 지상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 등의 운영원리는 무엇인가? 지상천국은 어떤 방법으로 실현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지상천국을 실현하는 주체는 지상천국의 주권자와 관련하여 누구인가? 상제(강증산), 도주(조정산), 도전(박한경)인가? 일만이천 도통군자인가? 아니면 수많은 신자인가? 대순진리회의 지상천국 실현가능성에 대한 분석은 『전경(典經)』을 중심으로 한 주요 문헌과 관련 선행연구를 인용하면서 전개하기로 한다.

먼저 지상천국의 개념, 달성 방법, 달성 주체와 관련된 체계적인 언급은 도주(조정산)와 관련된 『전경』 속에 있다.⁵⁾ 상제 → 도주 → 도전의 정통적 승계⁶⁾속에서, 도주의 무극도에 정리된 종지, 신조, 목적을

5) 『전경』, 교운 2장 32절.

6) 도주는 무극도 창도로 상제를 잇는다. 같은 책, 교운 2장, 32절, “도주께서는 九년의 공부 끝인 정사년에 상제의 삼계 대순(三界大巡)의 진리를 감오(感悟)하시도다” (교운2장 6절). ‘을축년에 구태인 도창현(舊秦仁道昌峴)에 도장이 이룩되니 이때 도주께서 무극도(無極道)를 창도하시고 상제를 구천 응원 뇌성 보화 천존 상제(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上帝)로 봉안하시고 종지(宗旨) 및 신조(信條)와 목적(目的)을 정하셨도다.’

도전은 도주의 임명을 받는다: 같은 책, 교운 2장 64절, “도주께서, 다음해 2월 하

중심으로, 지상천국의 개념, 달성 방법, 달성 주체의 측면에서 정리될 수 있다. 지상천국의 개념에 해당하는 항목은 종지(宗旨)의 도통진경(道通眞境), 목적(目的)의 지상천국(地上天國)이고, 음양합덕(陰陽合德) · 신인조화(神人調化) · 해원상생(解冤相生)은 지상천국이 실현된 상태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종지의 개념 모두 지상천국의 달성 방법으로 볼 수도 있다. 지상천국의 달성 방법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신조(信條)의 사강령(四綱領): 안심(安心) · 안신(安身) · 경천(敬天) · 수도(修道)와 삼요체(三要諦): 성(誠) · 경(敬) · 신(信), 목적(目的)의 인간 개조(人間改造)를 위한 무자기(無自欺), 정신개벽(精神開闢), 세계개벽(世界開闢), 지상신선실현(地上神仙實現) 등을 들 수 있다. 지상천국의 달성 주체는 개조된 인간(인간개조), 신과 조화된 인간(신인조화), 신조의 사강령과 삼요체를 실천하는 인간으로 상정할 수 있다. 이같이 분류된 세 영역은 해석과 실천에 따라 서로 중첩될 수도 있다.

먼저 지상천국의 개념을 살펴보자. 지상천국은 어떤 국가인가? 지상천국과 비슷하게 쓰이는 개념은 ‘선경(仙境)’, ‘후천(後天)’, ‘지상선경(地上仙境)’, ‘도통진경’ 등이 있다.⁷⁾ 『전경』에 나타난 내용은 다음

순경에 최고 간부 전원이 모인 자리에서 ‘박한경을 도전으로 임명하니 그는 총도전 이니라. 종전의 시봉도전과는 전혀 다르니라’고 분부를 내리셨도다.”

같은 책, 교운 2장 66절, “도주께서 이튿날 미시에 간부 전원을 문밖에서 시럽게 한 후 도전 박한경을 가까이 하고 도전의 머리에 손을 얹고 도의 운영 전반을 말도록 분부를 내리고 “오십 년 공부 종필(五十年工夫終畢)이며 지기 금지 사월래(至氣今至四月來)가 금년이다. 나는 간다. 내가 없다고 조금도 낙심하지 말고 행하여 오던 대로 잘 행해 나가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문밖을 향하여 “도적놈”을 세 번 부르시더니 화천하시니라. 무술년 3월 6일 미시오 양력으로 1958년 4월 24일이오. 수는 64세로다.”

도전님 말씀은 다음과 같다: “나는 도주님의 유명(遺命)을 직접 받아 종통을 계승하였느니라” 『대순지침』 <80.7.22>, “본도의 연원(淵源)은 상제님의 계시(啓示)를 받으셔서 종통을 세우신 도주님으로부터 이어 내려왔다.”(도헌 제13조) <82.6.28>

- 7) 나권수, 『대순진리회의 이상사회론 연구』, 『대순사상논총』 21 (2013), ‘이상사회와 관련된 대순사상에서는 다양한 용어로서 명시하고 있다. 우선 상제님께서 ‘선경, 지상선경, 낙원, 지상천국, 후천, 후천선경, 후천 성인시대, 좋은 시대, 앞으로 오는 좋은 세상’ 등으로 이상사회를 다양하게 묘사하고 있다. 한편, 도주님께서 ‘종지’에서 ‘도통진경(道通眞境)’, 목적에서 ‘지상천국’, 「각도문」에서 ‘청화오만년용화선경(淸華五萬年龍華仙境)’, 「포유문」에서 ‘무량극락오만년청화지세(無量極樂五萬年淸華之世)’ 등으로 표현하였고, 도전님께서 ‘대순지침’과 「포덕교화기본원리」에서 ‘지상낙원’, 「대순진리회요람」에서 ‘도화낙원(道化樂園)’과 ‘후천의 무궁한 선경’ 등으로 기술하고 있다.’

과 같다. ‘선경’은 ‘앞으로 오는 좋은 세상’(공사 1장 31절)이다. ‘후천’은 추수의 때, 평화의 시기, 불로장생의 시기인 ‘지상선경’이다.⁸⁾ ‘도통진경’의 실상은 만법통일시대, 무위이화의 조화시대, 인간이 위주가 되는 인존시대, 도통시대, 무재해시대, 천지성공시대로 정리되기도 한다.⁹⁾ 한편,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국가론은, ‘대안 제시는 부족하고 비판 정신이 풍부한 아나키즘의 국가론’¹⁰⁾과 ‘순수한 종교성을 견지하며 신비주의적인 색채를 강조하는 국가론’¹¹⁾과도 차별이 있으며, 또한 ‘상제님 자신이 순수 건설한다는 독자적인 이상사회론’¹¹⁾은 검토의 대상으로 간주한다.

지상천국은 어떤 정치체제를 갖는가? 이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에서는 상제의 직접 통치를 전제로 하는 신정론과 민주정과 연결되는 민주주의론을 발견할 수 있다. 신정론에서 주권자는 상제 1인인 군주정을, 민주주의론에서는 주권자가 피지배자 전체인 민주정을 정치체제론의 입장에서 상정할 수 있다. 신정론에서도 상제 1인의 직접 통치는 상징적이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는 수많은 국가가 있고 여기에는 수많은 주권자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차선근은 신정론에 대한 김항제와 자

8) 『전경』, 교법 3장 42절, “후천에서는 종자를 한번 심으면 해마다 뿌리에서 새싹이 돌아 추수하게 되고 땅도 가꾸지 않아도 옥토가 되리라. 이것은 땅을 석 자 세 치를 태우는 까닭이니라”

같은 책, 교법 3장 42절, “원시반분하는 때라 혈통줄이 바로 잡혀 환부역조와 환골하는 자는 다 죽으리라.”

같은 책, 예시 80절, “후천에는 사람마다 불로불사하여 장생을 얻으며 껍합을 열면 옷과 밥이 나오며, 만국이 화평하여 시기 질투와 전쟁이 끊어지리라.”

같은 책, 예시 81절, “후천에는 또 천하가 한 집안이 되어 위무와 형벌을 쓰지 않고 도 조화로서 창생을 법리에 맞게 다스리리라. 벼슬하는 자는 화권이 열려 분에 넘치는 법이 없고 백성은 원울과 탐욕의 모든 번뇌가 없을 것이며, 병들어 괴롭고 죽어 장사하는 것을 면하여 불로불사하며 빈부의 차별이 없고 마음대로 왕래하고 하늘이 낮아서 오르고 내리는 것이 뜻대로 되며 지혜가 밝아져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시방 세계에 통달하고 세상에 수·화·풍의 삼제가 없어져서 상서가 무르녹는 지상선경으로 화하리라.”

9) 배규한, 「대순사상의 도통진경과 이상세계에 대한 현대적 이해」, 『대순사상논총』 5 (1998); 김정태, 「도통진경의 실현과정에 대한 연구」, 『대순사상논총』 5 (1998); 주현철, 「도통진경의 실천적 배경」, 『대순사상논총』 5 (1998).

10) 김항제, 「대순사상과 아나키즘의 이상사회 이념에 대한 비교연구」, 『대순사상논총』 22 (2014).

11) 나권수, 「대순진리회의 이상사회론 연구」, 『대순사상논총』 21 (2013).

신의 선행연구를 분석적으로 비판하고, 14가지에 이르는 다양한 유형의 신정론을 제시하면서, 대순진리회의 신정론을 ‘개벽 이전 산천의 신정론’, ‘개벽 이전 과도기의 신정론’ 등으로 나누면서 신정론을 고찰하고 있다.¹²⁾ 하지만 정치체제론에서 볼 때, 모든 ‘신정론’은 주권자가 1인인 정치체제로서, 대순진리회 지상천국의 현실적인 모습은 군주정(절대군주정), 왕정, 제정 등이다. 하지만 상제 1인이 수많은 나라를 직접 통치하는 1인 주권자는 아니다. 현실적으로 세계개벽이 이루어지면 수많은 군주정이 수많은 주권자에 의해 운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신정이던 민주정이던 간에 지상천국의 정체에 계급이 존재하느냐의 문제이다.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의 존재 여부이다. 글쓴이는, 체제를 운영하기 위한 기능상의 계층은 불가피하나 권력투쟁과 연관된 지배-피지배 관계는 없다고 본다. 전경에 표현된 ‘계급’도 ‘계층’으로 보아야 하고, 계층 사이에 이른바 ‘계급투쟁’은 없다는 점이다.¹³⁾ 그리고 지상천국은 ‘천상’이 아닌 ‘지상’에서 실현되므로, 이 지상천국은 정교일치의 나라인가, 정교분리의 나라인가도 설명될 필요가 있다. 정교분리의 경우 타종교에 대한 관용과 이를 위한 법체제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 실현될 지상천국은 신법이나 자연법만 있으면 되고 어떠한 실정법도 필요 없는 국가인가? 지상천국은 선천에서의 계급투쟁과 종교갈등도 없는 진법(眞法)의 나라이다. 진법은 신법이나 자연법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정치와 교화가 일치하는 후천세계의 지상천국이다.¹⁴⁾

12) 차선근, 「대순진리회에서 신정론 문제」, 『대순사상논총』 33 (2019).

13) 『전경』, 예시 81절, “후천에는 계급이 많지 아니하나 두 계급이 있으리라. 그러나 식욕은 고르리니 만일 굶이 낮고 먹기까지 고르지 못하면 어찌 원통하지 않으리오.”(교법 2장 58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구절에서 “후천에는 또 천하가 한 집안이 되어 위무와 형벌을 쓰지 않고도 조화로써 창생을 법리에 맞도록 다 스리리라. 벼슬하는 자는 화권이 열려 분에 넘치는 법이 없고 백성은 원울과 탐음의 모든 번뇌가 없을 것이며… 지혜가 밝아져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시방 세계에 통달하고…”

14) 같은 책, 교법 3장 26절, “옛적에 신성(神聖)이 입극(立極)하여 성·웅(聖雄)을 겸비해 정치와 교화를 통제 관장(統制管掌)하였으되 중고 이래로 성과 웅이 바탕을 달리하여 정치와 교화가 갈렸으므로 마침내 여러 가지로 분파되어 진법(眞法)을 보지 못하게 되었느니라. 이제 원시반본(原始返本)이 되어 군사위(君師位)가 한 갈래로 되리라.”

다음으로 민주주의와 관련해서 양무목은 자유와 평등, 인간의 존엄성 존중을 기본 이념으로 하는 민주주의를 조화와 타협이라는 포괄적 개념으로 전제하면서, 대순사상을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인류 구원 사상으로 설정하고 있다.¹⁵⁾ 글쓴이가 지상천국이 실현된 상태나 실현 방법으로 설정한 음양합덕, 신인조화, 해원상생, 도통진경과 천지공사가 민주주의와 갖는 내적 연관성을 설명하고, 한국정치 현실을 비판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대순사상이 한국정치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민주주의가 오도되었다고 진단한다. 올바른 민주주의는 대순사상의 실천에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양무목의 논의에서 지상천국의 실현을 위한 ‘민주정’의 논의는 더 이상 구체화되고 있지 않다. 이상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설정된 지상국가가 현실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론적으로라도 구체화의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입법이나 교육제도 개선 등 대순사상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제안을 기대해본다. 하지만 대한민국만을 제한해서 볼 때, 현재 대한민국은 정교분리의 나라이고, 대순진리회는 종교 교단이므로 종교 교유의 영역에서 입법이나 교육제도 개선을 제안해도 정교분리의 원칙을 위배하는 일이 될 수 있다. 종교재단의 학교에서도 종교교육은 매우 제한적으로 실시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둘째로 지상천국의 달성 방법을 살펴보기로 하자. 지상천국은 어떤 방법으로 실현할 수 있는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음양합덕, 신인조화, 해원상생, 도통진경 등을 모두 지상천국의 달성 방법으로 볼 수도 있다. 여기서 음양합덕은 선천세계의 상극을 벗어나, 후천세계에서 우주만물의 조화, 천지조화, 정신과 물질의 조화를 이루는 방법이며, 그 원리로는 정음정양, 음양상생, 음양조화가 제시된다.¹⁶⁾ 지상천국의 달

15) 양무목, 「천지공사와 민주주의」, 『대순사상논총』 2 (1997); 양무목, 「대순사상과 정치적 민주주의의 실현: 4대 종지를 중심으로」, 『대순사상논총』 6 (1998); 심의민, 「민주주의와 관련해서는 정병화」, 「심의민주주의에 대한 해원상생사상의 정치철학적 함의」, 『대순사상논총』 23 (2014) 참고.

16) 고남식, 「『전경』에 나타난 음양합덕의 원리: 후천선경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대순사상논총』 2 (1997). 또한 김영두, 「대순 음양합덕의 현대적 의의: 지구촌 우주시대 중심으로」, 『대순사상논총』 2 (1997)를 참고.

성 방법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신조의 4강령(안심, 안신, 경천, 수도)과 3요체(성, 경, 신), 목적의 인간개조를 위한 무자기, 정신개벽, 지상선선 실현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항목은 그 자체로 지향하는 목표가 되기도 하지만, 목표를 이루는 수단이나 방법이 될 수 있으며, 목표를 이루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상천국의 달성 방법은 ‘상제에 의한 방법’과 ‘상제 이후의 방법’으로 정리해볼 수 있다. 먼저 ‘상제에 의한 방법’은 삼계공사이고 이 방법은 ‘도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삼계공사는 상생의 도를 후천의 선경에 세워 ‘새로운 법’¹⁷⁾으로 해원하는 방법(공사 1장 3절, 공사 1장 4절 5절)이다. 삼계공사는 후천개벽이고 해원상생¹⁸⁾을 위한 공사로서, 천지인 삼계에 대한 개벽¹⁹⁾이다. 그런데 이 삼계공사는 ‘도수’에 의해 이루어지고, 이 ‘도수’는 상제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도수’ 정리로 해원상생, 후천선경이 가능하다.²⁰⁾ 상제는 모든 도법을 합하여, 모

17) 『진경』, 행록 2장 14절, “하루는 상제께서 가라사대 “대법 관 안에 있는 법을 써서 일하면 세상 사람의 이목의 저해가 있을 터이니 관 밖에서 일하는 것이 완전하리라”고 이르셨도다.”

같은 책, 예시 4절, “상제께서 광구천하하심에 있어서 ‘관 안에 있는 법으로써 가 아니라 관 밖에서 새로운 법으로써 삼계공사를 하여야 완전하리라 하셨도다.’”

18) 같은 책, 예시 6절, “선천의 도수를 뜯어고치고 후천의 무궁한 선경의 운로를 열어서 선천에서의 상극에 따른 모든 원한을 풀고 상생의 도로써 세계의 창생을 건지려는 상제의 뜻은 이미 세상에 흥포된 바이니라.”

19) 같은 책, 예시 5절, “그 삼계공사는 곧 천지인의 삼계를 개벽함이요 이 개벽은 남이 만들어 놓은 것을 따라 하는 일이 아니고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니 예전에도 없었고 이제도 없으며 남에게서 이어받은 것도 아니요 운수에 있는 일도 아니요 다만 상제에 의해 지어져야 되는 일이다.”

같은 책, 예시 7절, “그리하여 상제께서 탄강하여 하늘도 뜯어고치고 땅도 뜯어고쳐서 심명이 사람에게 드러낼 수 있게 하시고 세상에서 버림을 받은 자들을 찾아 쓰고 모든 것에 운을 붙여쓰기로 하셨도다. 이것은 삼계를 개조하기 위함이다.”

같은 책, 예시 17절, “삼계가 개벽되지 아니함은 선천에서 상극이 인간지사를 지배하였으므로 원한이 세상에 쌓이고 따라서 천지인 삼계가 서로 통하지 못하여 이 세상에 참혹한 재화가 생겼나니라.”(예시 8절) “상제께서 하루는 김형렬에게 ‘삼계대권을 주재하여 조화롭게 천지를 개벽하고 후천 선경을 열어 고해에 빠진 중생들을 널리 건지려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제 말세를 당하여 앞으로 무극대운이 열리나니 모든 일에 조심하여 남에게 적을 짓지 말고 죄를 멀리하여 순결한 마음으로 천지공정에 참여하라’고 이르시고 그에게 신안을 열어 주어 신명의 회산과 청령을 참관케 하셨도다.”

20) 같은 책, 공사 3장 5절, “해원으로서 만고의 신명을 조화하고 천지의 도수를 조정 하여야 하고 이것이 이룩되면 천지는 개벽되고 선경이 세워지리라.”

같은 책, 예시 9절, “그러므로 상제께서 오셔서 천지 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

든 법을 합하여 도수를 물샧틈 없이 짜놓으셨다.²¹⁾ 삼계공사는 후천의 새 운수를 여는 개벽공사(공사 2장 24절)이다.²²⁾ 그렇다면 지상천국을 실현한다는 이 ‘도수’는 무엇인가? ‘도수’는 이성(理性)으로서는 이해가 불가능한 신성(神性)의 영역이다. 박인규의 연구²³⁾에 따르면, 전경에서 ‘도수’는 천지, 우주 자연의 법칙 또는 의미, 천지공사·삼계공사의 구체적 목록, 천지법칙의 변화과정, 기간 및 절차 등의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박인규는 대순진리회 문헌에서 도수의 다양한 표현, 그리고 중국문헌과 한국 문헌에서 다양한 용례와 의미를 분석하면서,

하여 만고에 쌓인 원한을 풀고 상생의 도를 세워 후천전경을 열어 놓으시고 신도를 풀어 조화하여 도수를 굳건히 정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신 후에 인사를 조화하니 만인이 상제를 하느님으로 추앙하는 바가 되었도다.”

같은 책, 예시 10절, 삼계공사에는 명부공사가 포함된다: “상제께서 삼계가 착란하는 까닭은 명부의 착란에 있으므로 명부에서의 상극 도수를 뜯어고치셨도다. 이로써 비겁에 쌓인 신명과 창생이 서로 상생하게 되었으니 대세가 돌려 잡히리라.”

같은 책, 예시 11절, “이 공사를 행함으로써 일체의 아표신이 천상으로 올라가니 땅에 굽주림이 사라지고 그 신들의 재해가 없어지도다.”

- 21) 같은 책, 예시 13절, “선천에서는 판이 좁고 일이 간단하여 한 가지 도만을 따르셔서 난국을 능히 바로 잡을 수 있었으나 후천에서는 판이 넓고 일이 복잡하므로 모든 도법을 합하여 쓰지 않고는 혼란을 바로잡지 못하리라.”

같은 책, 예시 73절, “신도(神道)로써 크고 작은 일을 다스리면 현묘 불측한 공이 이룩되나니 이것이 곧 무위화니라. 신도를 바로 잡아 모든 일을 도의에 맞추어서 한량 없는 선경의 운수를 정하리니 제 도수가 돌아 닿는대로 새 기틀이 열리리라. … 평란하지 못한 것은 다만 선불유의 법술이 다른 까닭이니라. 옛적에는 판이 좁고 일이 간단하므로 한가지만 써도 능히 광란을 바로 잡을 수 있었으되 오늘날은 동서가 교류하여 판이 넓어지고 일이 복잡하여져서 모든 법을 합하여 쓰지 않고는 혼란을 능히 바로 잡지 못하리라.”

같은 책, 예시 12절, “상제께서 모든 도통신과 문명신을 거느리고 각 민족들 사이에 나타난 여러 갈래 문화의 정수를 뽑아 통일하시고 물샧틈없이 도수를 짜놓으시니라.”

- 22) 같은 책, 예시 30절, “이후로는 천지가 성공하는 때라, 사신이 사명하여 만유를 제제하므로 모든 이치를 모아 크게 이루나니 이것이 곧 개벽이니라. 만물이 가을 바람에 따라 떨어지기도 하고 혹은 성숙도 되는 것과 같이 참 된 자는 큰 열매를 얻고 그 수명이 길이 창성할 것이오. 거짓된 자는 말라 떨어져 길이 멸망하리라. 그러므로 신의 위엄을 떨쳐 불의를 숙청하기도 하며 혹은 인애를 베풀어 의로운 사람을 돕나니 복을 구하는 자와 삶을 구하는 자는 험쓸지어다.”라고 말씀하셨도다.”

후천개벽, 세계개벽과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김석환, 「대순진리의 목적에 관한 연구 3: 지상천국건설 세계개벽을 중심으로」, 『대순사상논총』 15 (2002); 안중운, 「지상천국과 세계개벽 가능성에 관한 연구」, 『대순사상논총』 15 (2002); 윤용복, 「대순진리회의 후천개벽 세계관」, 『대순사상논총』 27 (2016); 정대진, 「지상천국건설-세계개벽에 대한 이해」, 『대순사상논총』 15 (2002); 주현철, 「도통신경의 실천적 배경」, 『대순사상논총』 5 (1998); 최동희, 「인간으로서의 자각을 통한 인류평화: 인간개조를 통한 세계개벽」, 『대순사상논총』 15 (2002) 등을 참고.

- 23) 박인규, 「대순사상의 도수론 연구」, 『대순사상논총』 28 (2017). 또한, 김택, 「정산송규의 사상 형성과정에 미친 증산의 영향」, 『대순사상논총』 38 (2021)을 참고.

상제·도주·도수' 사용²⁴⁾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있다. 특히 도전의 경우 중단 외부의 연구자에게는 미공개상태인 훈시 자료를 활용하여 도전 역시 '도수'를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²⁵⁾ 다음으로 지상천국을 달성하는 '상제 이후의 방법은 무엇인가? 도주의 해원 제민 사업²⁶⁾과 대순진리회의 구호자선사업·사회복지사업·교육사업이라는 3대 중요사업 등이다.²⁷⁾ 이외에도 기존 연구에서 주목되는 방법은 무극도의 항일독립운동과 보천교의 민족운동이다.²⁸⁾

셋째로 지상천국의 달성 주체를 살펴보기로 하자. 지상천국을 실현하는 주체는 지상천국의 정치체제 주권자와 관련하여 누구인가? 신정정체나 절대군주정을 상정할 때 상제(강증산), 도주(조정산), 도전(박

24) 상제의 도수 사용례는 『전경』 행록 3장 53, 54, 65절, 행록 4장 8, 15, 29절, 공사 1장 2, 3절, 공사 2장 3, 16, 17절, 공사 3장 5, 6, 11, 17, 18, 33, 37절, 교운 1장 30절, 교법 2장 55절, 교법 3장 4, 6, 34절, 권지 1장 21절, 제생 35, 예시 6, 9, 10, 12, 16, 19, 24, 31, 53, 54, 73절 등이다. 도주의 경우 용례는 교운 2장에 나타나 있다. 교운 2장 11, 14, 20, 21, 24, 25, 27, 28, 29, 30, 38, 43, 44, 46, 47, 48, 66절.

25) 중단 밖의 외부연구자가 도전님 말씀을 볼 수 있는 자료는 『대순지침』으로서 1980년 1월부터 1984년 3월까지의 자료이다. 박인규의 연구는 이 기간 이후의 말씀 자료인 『훈시』를 활용하고 있다(1991년까지의 내부자료 인용). 여기에는 수리적 세계관을 보여주는 상수역학에 대한 훈시도 있으며, 도수와 윤기를 설명하는 천지도수의 훈시도 있다. 사람들의 만남, 무극도→태극도→대순진리회로의 도의 변천 과정, 중국동 도장·여주도장 창건 모두 도수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26) 『전경』, 교운 2장 35절, “이때부터 도주께서는 도지를 해원하고 제민(濟民)하고자 안면도와 원산도(元山島) 두 섬에 간사지(干澇地)를 개척하기 시작하셨다. 신도들로 구성된 진업단(進業團)과 현금 二만 원과 구태인 일대의 개간지에서 얻어진 곡물 三百石이 동원 투입되었다. 그러나 두 섬의 네 곳에서 뜻을 이룩하고자 하였으되 심한 풍랑으로 두 곳은 뜻을 이룩하지 못하고 그 후 일본(日本) 마상 회사(馬上會社)가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안면도의 二만 평의 농지와 원산도의 염전(鹽田)은 두 곳의 여러 마을 사람을 구제할 수 있었다.”

27) 대순지침에 있는 도전님 말씀은 중요한 참고 사항이다: 도주님의 창도정신인 구국제민의 마음으로 국민운동에 참여하라<82.8.20>, 도주님의 구국운동의 깊은 뜻에 따라 금번의 독립기념관건립 모금 운동에 도인들도 성의를 다하기를 바란다<82.8.20>. 국민의 의무를 수행하고 권리를 바로 행하여야 한다<80.9.23>, 국법에 순응하고서야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다<80.9.23>, 국법을 지키고 윤리도덕을 준행하며 국리민복에 기여하게 하라<82.11.3>.

28) 고남식, 「개화기 조선사회에 대한 강증산의 현실인식과 그 해결방안 일고찰」, 『동아시아고대학』 68 (2025); 고병철, 「종교와 항일독립, 그리고 생절: 무극도 사례를 중심으로」, 『대순사상논총』 35 (2020); 안후상, 「일제강점기 보천교의 민족운동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2); 나권수, 「대순진리회의 이상사회론 연구」, 『대순사상논총』 21 (2013) 등을 참고.

환경)인가? 과두정이나 귀족정을 상징할 때, 일만이천 도통군자인가? 아니면 민주정을 상징할 때, 개조된 인간(인간개조), 신과 조화된 인간(신인조화), 신조의 4강령(안심, 안신, 경천, 수도)과 3요체(성, 경, 신)를 실천하는 인간으로 그 주체를 생각해볼 수 있다.

먼저 지상천국의 달성 주체는 상제(강증산)이며, 무극도의 도주(조정산), 그리고 대순진리회의 도전(박한경)이다. 상제는 '모든 우주적 규범을 초월하는 독보적 권위'를 갖는다.²⁹⁾ 상제는 구천의 신성·불·보살의 호소를 받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다.³⁰⁾ 상제는 직접 강세, 승천하셨고 재림하신다.³¹⁾ 상제는 '도수'로 삼계공사를 하여 지상천국을 가장 확실하게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이다. 이 외에도 지상천국 달성 가능성과 한계와 관련하여 『전경』에 언급된 인물로는 진묵, 최계우(최수운), 전명숙(전봉준), 순병희, 이마두 등이 있다.³²⁾ 다음으로 지상천국-도통진경을 달성할 수 있는 다수의 집단으

29) 윤용복, 「대순진리회 신관념의 특성」, 『대순사상논총』 21 (2013).

30) 『전경』, 예시 1절, “상제께서 구천에 계시자 신성-불-보살 등이 상제가 아니면 혼란에 빠진 천지를 바로 잡을 수 없다고 호소하므로 서양 대법국 천계탑에 내려오셔서 삼계를 둘러보고 천하를 대순하시다가 동토에 그쳐 모악산 금산사 미륵금상에 입하여 20년을 지내시면서 최수운에게 천명과 신교를 내려 대도를 세우게 하셨다가 갑자년에 천명과 신교를 거두고 신미년에 스스로 세상에 내리기로 정하셨도다.” 같은 책, 권지 1장 11절, “나는 서양 대법국 천계탑에 내려와서 천하를 대순하다가 삼계의 대권을 갖고 삼계를 개혁하여 선경을 열고 사멸에 빠진 세계 창생들을 건지려고 너희 동방에 순회하던 중 이 땅에 머문 것은 곧 참화 중에 묻힌 무명의 약소 민족을 먼저 도와서 만고에 쌓인 원을 풀어주려 함이노라, 나를 좇는 자는 영원히 복록을 얻어 불로불사하며 영원한 선경의 낙을 누릴 것이니 이것이 참동학이나라. 궁을가에 조선강산 명산이라 도통군자 다시난다'라 하였으니, 또한 나의 일을 이름이라. 동학 신자 간에 대선생이 갱생하리라고 천하니 이는 대선생이 다시 나리라는 말이니 내가 곧 대선생이로다'라고 말씀하셨도다.”

대순사상에 나타난 동학의 위상과 증산의 참동학 전개에 대해서는 고남식, 「대순사상에 나타난 동학과 증산의 참동학 전개」, 『대순사상논총』 16 (2003) 참고.

31) 단군과 상제의 강세신화의 유사성과 차별성, 그리고 증산종단과 단군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고남식, 「구천신화의 강세신화와 지상천국」, 『대순사상논총』 15 (2002); 차선근, 「증산계 신종교 일괄기술에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향」, 『신종교연구』 30 (2014); 차선근, 「대순사상과 단군사상 비교연구」, 『대순사상논총』 31 (2018); 홍범초, 「증산종단 경진성립사 연구: 증산종단의 기본경전을 중심으로」, 『한국종교사연구』 3 (1995); 홍범초, 「증산종단의 종교사상으로 본 단군」, 『단군학연구』 2 (2000) 등을 참고.

32) 『전경』, 교운 1장 65절, “또 어느 날 상제께서 말씀하시길 “선도(仙道)와 불도(佛道)와 유도(儒道)와 서도(西道)는 세계 각 족속의 문화의 바탕이 되었나니 이제 최수운(崔水雲)을 선도(仙道)의 종장(宗長)으로, 진묵(震默)을 불교(佛敎)의 종장(宗長)

로 도통군자³³⁾를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도통군자의 교육과 양성 방법이다. 도통군자의 교육과 양성의 문제는 종단 내부의 문제로 제한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지상천국은 종단 영역 밖의 정치 현실 속에서 실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종단 내부에서는 신조의 4강령(안심, 안신, 경천, 수도)과 3요체(성, 경, 신)를 실천하는 신자들을 교육할 수 있고 양성할 수 있다. ‘판 밖’의 새로운 법으로 ‘판 안’의 인간을 어떻게 조화시켜서 개조할 것인가? 개혁의 대상인 민주주의와 한국 정치의 현실 속에서 대순진리회의 지상천국을 실현할 주체들을 확보할 종단의 전략 수립이 과제이다.

지상천국은 천상천국이 아니다. 현세에서 실현되는 내세의 천상천국이 바로 지상천국이다. ‘도수’에 의해 삼계공사가 완성되어야 한다. 지상천국은 비참한 현실과 개혁되어야 할 인간들 속에서 실현된다. 지상천국의 실현은 현실과 인간이 개혁되어야만 이루어진다. 사강령과 삼요체를 통한 개개인의 인간성에 대한 완전한 자각과 지상신선을 향한 자기완성, 내적인 정신세계와 외적인 물질세계의 조화, 정신과 육체의 조화, 인간과 신과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상천국이 내 마

으로, 주 회암(朱晦庵)을 유교(儒敎)의 종장(宗長)으로, 이마두(利瑪竇)를 서도(西道)의 종장(宗長)으로 각각 세우노라”고 하셨도다.”

한편 전경에는 이 인물들과 관련된 언급이 많이 보인다: 진목(행록 1장 31절, 공사 1 15절, 3장 14, 15절, 교운1장 65절, 권지 2장 37절, 예시 37절), 전명숙(공사1장 7, 27, 43절, 공사3장 2절, 교법1장 2절, 교법3장 10, 30절, 예시 50절), 진봉준(행록 21, 23장 예시 50절), 손병희(권지 1장, 예시 59, 60절), 이마두(교운 1장 9 10절, 예시 66절), 최제우(교운 1장 9, 20절, 교법 30장), 최수운(공사 1장 7절, 2장 3절, 3장 2절, 교운 1장 65절, 교법 2장 3절, 예시 1, 66, 79절) 등.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종교 사이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다루어 대순진리회의 특징을 드러내는 비교종교학 그리고 종교들의 국내외 정치 권력과의 맥락을 다루는 종교정치학적 분석은 별도의 논문이 필요하다. 최제우, 진봉준, 손병희에 대한 분석은 증산의 참동학에 대한 분석과 연결된다. 그리고 특히 가톨릭의 중국 선교와 관련된 내용은, 글쓴이가 출판을 준비하고 있는 마테오리치의 프랑스어-라틴어 원저작과 관련 원전 등을 기본으로 하여, 공자승배와 조상제사 등 이른바 전례논쟁을 중심으로 독립된 논문으로 다룰 예정이다.

선불유 삼도와의 비교를 통한 대순사상의 관왕론에 대해서는 김귀만, 「대순사상의 관왕론 연구: 선불유 삼도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대전대학교 박사학위 논문(2018) 참고.

33) 『전경』, 예시 45절, ‘도는 장차 금강산 일만이천봉을 응기하여 일만이천의 도통군자로 창성하리라. 그러나 후천의 도통군자에는 여자가 많으리라’ 하시고.

음과 양심 안에 있다는 말은 정당하고, 내가 곧 예수요 부처라는 말은 성립 가능하지만, 이러한 말은 지상천국의 구현 양상을 개별화하고 축소시키는 작업이다. 왜냐하면, 개인에서 가능한 완성과 조화가 사회와 국가 안에서 확산되어야 지상천국은 좀 더 넓게 가능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상천국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에서 실현되어야 한다. 지상천국은 한 나라의 정치적 이상세계뿐 아니라 전 세계 전 인류 역사의 종교적 이상세계를 포괄하는 문명 세계이기 때문이다. 전 세계 인류의 전면적인 개조 없이 지상천국의 실현은 불가능하다. 세계개혁이 없이 지상천국은 불가능하다. 지상천국은 전 세계 문명의 개혁이라는 세계개혁을 통해 이루어진다. 최소한 한반도 주변 4강의 개혁은 어떻게 이를 것인가? 더구나 이것만으로 충분하지도 않다. 인간개조, 국가개조, 세계개조를 위해 상제가 아닌 우리 인간은 어떤 ‘도수’를 사용할 수 있을까?

V. 이상국가와 지상천국의 실현가능성과 과제

본 논문에서는 플라톤의 이상국가는 실현되고 있다는 논지를 전개하였다. 그 논거는 플라톤이 이상국가의 실현을 위해 구체적인 입법을 하고, 이 법률의 실현을 위해 교육에 대한 구상과 실천을 했다는 점이다. 플라톤의 법이 신법이 아닌 자연법, 그리고 그의 입법이 자연법이 아닌 실정법으로 평가되어도, 그의 법률과 교육은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 ‘가장 덜 나쁜 방법’이며, 이러한 플라톤의 사상은 서양의 법철학과 자연법사상의 시원으로서 민주주의 사상의 토대를 이루었고, 인간의 자유와 평등, 이성을 존중하는 근대 자연법사상, 계약 사상, 그리고 민주주의 사상의 기초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지를 인정할 경우, 한국에서도 플라톤 이상국가의 실현은 진행되고 있다는 주

장도 받아들여질 수 있다. 물론 전 세계적으로 ‘이상적인’ ‘민주주의’는 너무나도 많은 현실적인 문제를 갖는 ‘개혁’의 대상이다. 플라톤에 대한 새로운 해석은 ‘플라톤을 전체 저작을 통해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이해하기’와 ‘아리스토텔레스를 통하지 않고 플라톤을 직접 이해하기’라는 학문적 태도가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만 해도 받아들일 수 있는 해석이다. 이러한 해석을 인정하지 않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비교에 대한 해석을 달리 할 경우 플라톤을 떠나, 고대 그리스의 민주주의와 근대 민주주의를 토대로 한 서양의 민주주의를, 대의제와 다수결 제도의 현실적인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상국가가 지향해야 할 정치이념으로 설정한다면, 글쓴이의 논지는 받아들여질 수 있다.

한편 대부분의 사상과 종교는 당대의 정치, 사회 현실에 대한 강한 불만과 냉엄한 비판을 반영하여, 이상세계를 대안으로 설계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사상의 전개와 종교 성립 이후 현실이 얼마나 이상세계로 다가갔는지는 의문이다. 인류의 역사는 말세의 연속이었으며, 참담하고 비참한 현실은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한 채 말없이 그대로 흘러왔다. 또한, 현실에 대한 강한 불만과 비판은 있었어도 실현될 이상세계조차도 대안으로 제시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 예를들어 글쓴이의 해석에 따르면 마르크스의 국가론과 포스트모던 국가론이 대표적이다. 본 논문에서 국가론의 구성요소로 제시한 국가의 개념, 달성 방법, 달성 주체라는 세 가지 기준으로 볼 때 마르크스와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은 그 어느 구성요소도 체계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 이들에게는 당대 현실에 대한 비판만 있을 뿐 대안은 없었다.

대순진리회의 연원인 상제 역시 천지공사 전후의 한국 사회와 주변 국가에 대한 치밀한 통찰과 치열한 비판을 토대로, 지상천국 건설이라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순진리회의 지상천국은 그 구체적인 실천 가능성을 지금의 현실에 맞게 더욱 구체화하고 실천해야 하는 과제를 갖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민족종교를 넘어서서 보편종

교를 지향하는 대순진리회는, 한국을 넘어서서 전 세계에서 지상천국을 실현하기 위해 더욱더 치밀하고도 구체적인 신학 체계를 다양한 층위의 영역에서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21세기 정치 현실 속에서 대순진리회가 지상천국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통일과 한민족통합은 물론 기후변화 등을 위시한 전 세계의 환경문제에 대한 대책들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대순진리회 교무부, 『전경』, 여주: 대순진리회출판부, 2010.
- _____, 『대순지침』, 여주: 대순진리회출판부, 2012.
- _____, 『대순진리회요람』, 여주: 대순진리회출판부, 2010.
- _____, 『대순회보』, 68, 167.
- La République, livres I-III, IV-VII, VIII-X
- Théétète, Texte établi et traduit par August Diès, Paris, 1976
(7ème tirage)
- Le Politique, Texte établi et traduit par August Diès, Paris, 1970
(4ème tirage).
- Les Lois, livres I-XII Traduction nouvelle et notes établies par
LéonRobin avec la collaboration de M. J. Moreau, Paris,
1950.
- Aristotle, The works of Aristotle translated into English, by Burnet
- 고남식, 「『전경』에 나타난 음양합덕의 원리: 후천선경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대순사상논총』 2, 1997.
- _____, 「구천상제의 강세신화와 지상천국」, 『대순사상논총』 15, 2002.
- _____, 「대순사상에 나타난 동학과 증산의 참동학 전개」, 『대순사상논총』
16, 2003.
- _____, 「개화기 조선사회에 대한 강증산의 현실인식과 그 해결방안 일고
찰」, 『동아시아고대학』 68, 2025.
- 고병철, 「종교와 항일독립, 그리고 쟁점: 무극도 사례를 중심으로」, 『대순
사상논총』 35, 2020.
<https://doi.org/10.25050/jdaos.2020.35.0.39>
- 김귀만, 「대순사상의 관용론 연구: 선불유 삼도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대
진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8.
- 김석환, 「대순진리의 목적에 관한 연구 3: 지상천국건설 세계개벽을 중시
으로」, 『대순사상논총』 15, 2002.

- 김영두, 「대순 음양합덕의 현대적 의미: 지구촌 우주시대 중심으로」, 『대순사상논총』 2, 1997.
- 김정태, 「도통진경의 실현과정에 대한 연구」, 『대순사상논총』 5, 1998.
- 김탁, 「정산 송규의 사상 형성과정에 미친 증산의 영향」, 『대순사상논총』 38, 2021. <https://doi.org/10.25050/jdaos.2021.38.0.47>
- 김항제, 「대순사상과 아나키즘의 이상사회 이념에 대한 비교연구」, 『대순사상논총』 22, 2014. <https://doi.org/10.25050/jdaos.2014.22.0.277>
- 나권수, 「대순진리회의 이상사회론 연구」, 『대순사상논총』 21, 2013.
- 나정원, 「맑시즘 국가론의 실천적 한계: 프랑스 지식인들의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 정치학회보』 30-1, 1996.
- _____, 『플라톤의 정치사상』, 서울: 법문사, 1989.
- _____, 「아리스토텔레스의 플라톤 비판에 대한 비판」, 『한국정치학회보』 28-2, 1994.
- _____,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정치사상 비교에 대한 비판 I」, 『한국정치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 1995.
- _____,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정치사상 비교에 대한 비판II」, 『한국정치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 1996.
- _____, 「아리스토텔레스와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논쟁」, 『한국정치학회보』 34-1, 2000.
- _____, 「민족담론과 탈민족담론의 변증법」, 『한국사학보』 19, 2005.
- 박인규, 「대순사상의 도수론 연구」, 『대순사상논총』 28, 2017. <https://doi.org/10.25050/jdaos.2017.28.0.207>
- 배규한, 「대순사상의 도통진경과 이상세계에 대한 현대적 이해」, 『대순사상논총』 5, 1998.
- 안종운, 「지상천국과 세계개벽 가능성에 관한 연구」, 『대순사상논총』 15, 2002.
- 안후상, 「일제강점기 보천교의 민족운동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2.
- 양무목, 「천지공사와 민주주의」, 『대순사상논총』 2, 1997.

- _____, 「대순사상과 정치적 민주주의의 실현: 4대 종지를 중심으로」, 『대순사상논총』 6, 1998.
- 윤용복, 「대순진리회 신관념의 특성」, 『대순사상논총』 21, 2013.
<https://doi.org/10.25050/jdaos.2013.21.0.1>
- _____, 「대순진리회의 후천개벽 세계관」, 『대순사상논총』 27, 2016.
<https://doi.org/10.25050/jdaos.2016.27.0.1>
- 정대진, 「지상천국건설-세계개벽에 대한 이해」, 『대순사상논총』 15, 2002.
- 정병화, 「심의민주주의에 대한 해원상생사상의 정치철학적 함의」, 『대순사상논총』 23, 2014.
<https://doi.org/10.25050/jdaos.2014.23.0.153>
- 주현철, 「대동진경의 실천적 배경」, 『대순사상논총』 5, 1998.
- 차선근, 「증산계 신종교 일괄기술에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향」, 『신종교연구』 30, 2014.
<https://doi.org/10.22245/jkanr.2014.30.30.57>
- _____, 「대순사상과 단군사상 비교연구」, 『대순사상논총』 31, 2018.
<https://doi.org/10.25050/jdaos.2018.31.0.199>
- _____, 「대순진리회에서 신정론 문제」, 『대순사상논총』 33, 2019.
<https://doi.org/10.25050/jdaos.2019.33.0.257>
- 최동희, 「인간으로서의 자각을 통한 인류평화: 인간개조를 통한 세계개벽」, 『대순사상논총』 15, 2002.
- 홍범초, 「증산종단 경전성립사 연구: 증산종단의 기본경전을 중심으로」, 『한국종교사연구』 3, 1995.
- _____, 「증산종단의 종교사상으로 본 단군」, 『단군학연구』 2, 2000.

■ Abstract

**Plato's Ideal State and the Earthly Paradise of
Daesoon Jinrihoe**

Nah Jeong-won

Professor Emeritu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Based on the components of Plato's Ideal State, this thesis aims to analyze the possibility of realizing the Earthly Paradise of Daesoon Jinrihoe. If Plato's Ideal State theory can be taken as one of the state theories of Western philosophy, then the Earthly Paradise of Daesoon Jinrihoe can be taken as a representative state theory of Korean religion. However, for both philosophy and religion's state theories to be realized, it is necessary to at least specify philosophically and religiously which state, which method, and who would create it. This thesis presents the political system of the Earthly Paradise; the forms of political and secular political systems, the sovereign of the Earthly Paradise; the issue of who would be the subject capable of realizing the Earthly Paradise, the method of realizing the Earthly Paradise; 'the methods of Sangje' and 'the methods after Sangje-Doju,' 'Dojeon,' 'the 12,000 Dao-empowered Sages,' and other related figures and concepts will be presented to determine how their potential roles in realizing the Earthly Paradise.

It can be judged that the Earthly Paradise of Daesoon Jinrihoe will be required to more concretely embody and practice its

concrete practical possibilities in accordance with the realities of the present time. Daesoon Jinrihoe, which aims to become a universal religion beyond its status as a national religion, should have a more detailed and specific theological system in various levels in order to realize the Earthly Paradise around the world beyond Korea. And in order for Daesoon Jinrihoe to realize the Earthly Paradise in the political reality of the 21st century, it is necessary to present measures for environmental issues around the world, including climate change, as well as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keywords: Daesoon Jinrihoe, Plato, Earthly Paradise, the Ideal State, Sangje, Doju, Dojeon